

# 국내 최대 강진 초당림 비밀정원 열린다

지난해 약 3,5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초당림 숲속 힐링 축제가 올해 강진군 칠량면 초당림 비밀정원에서 두 번째 날개를 펼친다.

제2회 초당림 숲속 힐링 체험행사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대한민국 최대 인공 조림지인 초당림에서 열린다.

초당림은 백제약품 창업자 초당 김기운 회장이 1968년부터 편백, 테다, 백합 등 경제수림 위주로 조림을 시작해 현재와 같은 울창한 숲을 이뤘다.

사유림인 초당림은 평상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돼 별칭처럼 비밀의 정원으로 알음알음 아는 것이 전부였으나 이번 행사 기간인 1년중 단 2일동안 천혜의 자연숲이 공개된다.

이번 행사는 29일 오후 2시 개막행사

‘1년에 단 이틀만’ 29~30일 초당림 축제

천혜의 자연숲 공개... 몸·마음 힐링 기회

를 시작으로 숲 해설가와 함께 걷는 숲속 여행, 별이 보이는 숲, 누워서 보는 숲속 하늘 등 초당림 내 데크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행사와 더불어 우드버닝, 나무인형 만들기, 압화 체험, 스트레스를 날리자 등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초당림의 편백과 백합나무 숲길을 따라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숲 속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좋은 기회이다.

특히, 초당림은 편백나무와 백합나무

숲 단지를 가로지르는 2.5km 데크길에 서 들리는 산새소리와 물줄기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하는 초당림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행사장 내에는 칠량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 옥수수, 화훼, 파프리카, 표고버섯 등 농·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군 해양산림과 김영기 과장은 “초당림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숲



국내 최대의 인공조림지인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초당림이 오는 29~30일 공개 체험행사를 연다. 지난해 제1회 초당림 숲속 힐링 축제 모습.

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돌볼 좋은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와 연계해 직접적인 지역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내고장 사람들



**신우철 완도**  
군수는 21일 오전 10시30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노인민속경연대회에 참석, 축하한다.



**안병욱 강진**  
부군수는 20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8지역 일자리 목표공



**이훈봉 진도**  
부군수는 21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국공립 조도어린이집 제

위탁 심사에 참석한다.



신안군이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

## 신안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

신안군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무상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 본소(압해읍) 및 권역별로 북부권(지도), 중부권(안좌), 서부권(도초), 남부권(장산)에 설치된 전 읍·면에 확대 보급하고 있다.

연간 190톤을 생산해 농작물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양식어가에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오염

을 줄이고,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의 밀도를 증식시켜 토양환경을 좋게 한다. 또 작물의 생육 촉진과 병해충 발생 억제, 품질 향상, 축사 악취 저감, 양식장 수질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강행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작물에 미치는 유용한 효과를 농업인 교육 및 현장 영농지도에 적극 홍보해 많은 농업인들이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목포 목원동 행정타운 인근 공영주차장 확충

목포시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했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원동 행정타운 인근에 지상 3층 1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20일부터 유료 개방한다.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58억원을 들여 5년에 걸쳐 조성됐다.

주차타워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주

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 중앙시장 및 행정타운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타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24시간 자동 무인 관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은 무료이며 이후 30분 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 해남 달마고도 국토부 명품길 선정

‘다도해 절경과 어우러진 땅끝만의 경관’ 우수 평가

땅끝의 아름다운 생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곡괭이, 삽·호미만 들고 사람의 힘으로 조성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해남군 송지면 땅끝에 조성된 달마고도 이야기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달마고도는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 절경이 어우러진 해남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이다.

공룡의 등뼈 같은 바위암릉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다도해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땅끝 사람들이 장에 가기 위해 걸었던 옛길이자 달마산 12개 암자를 잇는 수평

의 길을 새로 단장해 지난해 11월 열었다.

이 길은 중장비 하나 빌리지 않고 오롯이 곡괭이, 삽, 호미 등 사람의 힘으로만 길을 닦았다.

이렇게 정성을 쏟아부어 만든 달마고도 조성사업이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달마고도 조성사업이 경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다.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이뤄진 창의적 경관디자인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한

다. 한국경관협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국내 주요 학회가 모두 참여해 관련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땅끝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이야기가 있는 길로 재탄생한 달마고도만의 특징 있는 경관 조성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달마고도 조성사업은 공원산림차천분야 한국경관학회회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포럼 행사와 함께 열린다.

/해남=박병태 기자

## 목포경찰 불법촬영 예방

###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목포경찰서가 다중이용시설인 목포시외버스터미널과 여객선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내 공중 화장실에 불법설치 카메라 여부 점검에 나섰다.

1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위장 카메라가 정교해지고 촬영수법이 다양해지는 등 여성대상 불법촬영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성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목포경찰서는 범죄예방진단팀과 합동으로 여성불안을 야기하는 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에 나섰다.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와함께 목포경찰은 범죄통계·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과 단속할



목포경찰서는 최근 목포시외버스터미널과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불법설치 카메라 여부를 점검했다.

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점검과 순찰만으로 불법촬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시설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손괴된 시설 개

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여성 불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경찰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목 포 010-3272-2765  
011-632-0323  
010-3635-6777
- 신 안 010-4627-1472
- 영 암 010-4624-8409
- 진 도 010-3624-4777
- 완 도 010-5619-7020
- 해 남 010-8181-2627
- 강 진 010-6646-1241

## 클릭! 고향 소식



### 영암 덕진여사 추모제 봉행

영암군은 지난 18일 덕진면 덕송재에서 대서교장주 덕진공덕보존회 주관으로 덕진여사의 숭고한 공덕과 지역화합·안녕을 기원하는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섭 부군수를 비롯한 200여명의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유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정도섭 보존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통일신라때 영암전을 건너는 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재산으로 대서교를 만든 덕진여사의 공덕을 기렸다.

/영암=최복섭 기자



### 신안 CYS-Net 실행위원회

신안군은 최근 다목적실에서 실행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사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담사례 개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피드백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례 개입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연계, 위기 청소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진도경찰 사랑의 선풍기 전달

진도경찰서는 지난 18일 보안협력위원회와 관내 탈북민 가정에 선풍기를 전달했다.

이번 선풍기 전달은 ‘시원한 여름나기, 사랑의 선풍기’를 주제로 했으며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장영길 보안협력위원장은 “고마워하는 탈북민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탈북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 목포대 교직원 축구 우승

목포대학교 교직원 축구단은 최근 순천대학교 주최로 순천국가정원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호남지역 국·공립대 교직원 축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목포대를 비롯해 개최대학인 순천대, 전북대, 전남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등 6개 팀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 풀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목포대 관계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짬 내 동호회 활동 등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목포=강승우 기자